
	<h2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2> <h3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</h3>	
---	--	--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, 금융감독원 국제협력국, 한국금융연구원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		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탁윤성 과장 (2156-9780)	담 당 자	윤영주 사무관 (2156-9786)	
	금융감독원 김성범 국장 (3145-7890) 금융연구원 서정호 센터장 (3705-6348)		김금태 팀 장 (3145-7903) 이병관 부 장 (3705-6336)	
배 포 일	2015.10.28(수)	배 포 부 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2매

제 목 : 금융세일즈외교 강화를 위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(OJK) 부위원장 등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실시

□ (개요)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은 금융연구원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와 함께 10.27(화) ~ 10.31(토)의 일정으로 인니 금융감독청(OJK)* 고위 공무원에 대한 초청연수 실시

* 인니는 단일 감독기구인 OJK(Otoritas Jasa Keuangan(Financial Services Authority))을 출범('13.12월)하여 기존 권역별 감독체계를 통합

○ 금번에는 Rahmat Waluyanto(라흐맛 왈루안토) OJK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인니 보험·증권 감독 분야 국장급 고위공무원 등 6명이 방한

□ (행사 의의) OJK부위원장 등 고위공무원 참석은 한국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금융세일즈외교 결과

○ 금융위·금감원은 금융당국 간 MOU체결·고위급 회의 정례화·해외진출 관련 규제 개선 등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

○ 특히 인니와 관련하여,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Muliaman D. Hadad(물리아만 하다드) OJK위원장과 통합 금융감독기구 운영경험, 중앙은행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('15.8월)

- 진웅섭 금감원장은 '15.4월 인니를 방문하여 인니 금융감독청(OJK)과 MOU를 체결하고 제1차 한·인니 고위급 정례회의를 개최

□ (추진배경) 인니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주요 진출국*으로 금융당국 간 협력 및 만판 네트워크 강화에 대한 업계 수요가 가장 높은** 국가 중 하나

* 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 수('15.6월)는 20개로 ASEAN국가 중 베트남(45) 다음으로 많음

** 임종룡 위원장 해외진출 간담회('15.5월), 금융세일즈외교 수요조사('15.6월)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결과 베트남·캄보디아와 더불어 수요가 가장 높은 국가로 조사됨

○ '15.7월 발표한 “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” 중 진출 주요국 금융외교채널 확충대책의 일환

□ (행사 주요내용)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환영만찬, 금감원을 비롯한 공공 금융기관·민간 금융회사 등 주요 기관 방문, 양국 보험·증권 분야 관련 세미나 등으로 구성

○ 특히 정찬우 부위원장은 28일(수) 환영만찬*을 주최하며 양국 간 금융 협력이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으며, 앞으로 이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

* 정찬우 부위원장·국제협력관·글로벌금융과장, 금감원 김수일 부원장보·국제협력 국장, 신성환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의장·서정호 해금협지원센터장 등 참석

** 인니는 OJK방문단 6명 외에 존 프라스티오 주한 인니 대사도 참석

○ 이에 대해 Rahmat Waluyanto OJK 부위원장은 초청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양국 금융당국은 동반자로서 양국 금융산업 발전에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확고하게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화답

□ (향후 계획)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주요 진출 신흥국 금융당국 공무원 초청연수, 인도·미얀마·중국 등 주요 진출대상국과 회의정례화를 확대하는 등 금융회사 해외진출을 지속 지원할 계획